



태풍 '하이선' 물폭탄에 농심은 속탄다

선흘에 강수량 531.5mm... 도내 곳곳에 크고작은 생채기 구좌·송당·애월 저지대 생육기 농작물 침수피해 클 전망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오전 제주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태풍은 제주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북상하며 강풍보다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지난달 26일 이후 열흘 새 3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한창 생육기를 맞은 월동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7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은 이날 오전 3~4시쯤 제주와 240km 정도 떨어진 해상을 지나 북상했다. 제주에 근접할 당시 태풍은 최대풍속 초속 43m, 강풍반경 400km의 '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바람의 강도는 이날 2일 제주 전역을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 보다는 약했다. 태풍이 통과할때 주요지점의 순간 최대풍속은 고산 초속 31.2m, 한라산 남벽 29.0m, 새별오름 28.8m, 윗세오름에서 28.6m로 관측됐다. 6일부터 7일 오후 4시까지 누적강수량은 선흘 531.5mm, 한라산 남벽 353.5mm, 새별오름 229.5mm, 송당 260.0mm, 애월 151.0mm, 서광 141.5mm다.

많은 시간당 40~50mm의 폭우로 애월읍에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엔진이 꺼져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제주대학교 너거리 도로(한북로)가 침수돼 오전 한때 도로가 통제되

기도 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명구조 1건, 급·배수 지원 9건, 주택 지붕과 간판·신호등·도로표지판 등 16건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정읍에서는 전선이 끊어져 498가구가 정전됐다 등 급복 구되기도 했다.

도내 21개 학교도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 누수에서부터 운동장 펜스 파손, 체육관·급식실·복도 누수 등 크고작은 시설피해를 입었다. 태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부터 결

향됐던 제주기점 항공편은 7일 오후 12시 10분 김포발 제주행 대한항공 KE1223편을 시작으로 운항이 재개됐다. 하지만 제주를 오가는 7개 항로 여객선은 7일까지 이틀간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이처럼 '하이선'은 제주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는데 가장 큰 피해는 농경지 침수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과 애월읍,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저지대를 중심으로 당근, 월동무, 감자, 양배추 재배지들이 폭우로 잠긴 곳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7일 하순부터 파종한 당근과 8월 중순 이후 파종한 월동무와 모종을 정식한 양배

추 등은 초기 생육기에 있는데 열흘 동안 3개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에 고스란히 노출돼 뿌리가 흔들리거나 유실되고, 잎이 떨어져나가며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당근의 경우 현재 월동무 외에 마땅한 대체작물도 없는 상태다.

양행석 제주시 농정과장은 "제주는 열흘 새 3개 태풍의 영향을 받으며 월동채소를 파종하거나 정식한 농경지가 채 마를 새도 없이 폭우에 잠기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물이 빠지면서 농가 피해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7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사거리와 요양병원 구간 도로(한북로)가 침수돼 오전 한때 도로가 통제됐다.

“30대 여성 살인사건 엄정 수사를” 청원

피해자 부친 “계획 범행” 주장

지난달 30일 제주시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착하게만 살아 온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 한이 맺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국민 청원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CCTV 화면상 자기 차로 그 넓은 오일장을 3바퀴 정도 돌며 지나가던 제 딸을 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범행을 한 것을 보면 성폭행도 범하려고 하다가 딸이 심한 반항을 하니 범행한 것 같다”며 계획적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후문 인근 밭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A(29)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황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부미한기자

외국인 선원 거주 주택서 불 '마이삭' 피해농가에 재난금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5명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주택에 거주하는 어선 기관장이 1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해 119로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불로 1층 내부가 전소되고 2층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과 담뱃불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대해기자

제주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달 12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피해농가 등 사유 시설 접수는 이달 16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7일 시에 따르면 '마이삭' 관련 이달 3일까지 신고된 피해는 주택 반파 1건, 농경지 유실 0.1ha, 농작물 254.4ha 등이다.

태풍 피해주택의 경우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 등을 산정 지원한다. 문미숙기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제멋대로 건물 짓고 물건 쌓고...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여전하네”

제주시, 5개 읍면 전수조사 1459곳 적발... 전체의 16.5%

제주시가 5개 읍·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8월 주차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5개 읍·면 부설주차장 8799개소(4만3187면)를 전수조사했는데, 1459개소에서 불법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읍면 전체 부설주차장의 16.5%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경우가 854개소로 가장 많았고, 물건적치 398개소, 출입구 폐쇄 207개소다.

시는 이들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등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원상회복이 이뤄

지지 않을 경우 불법 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21만8854면으로, 시 전체 주차면(26만2990면)의 83.2%를 차지해 불법 사용은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동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서는 총 1759개소에서 불법행위(현시정정이 이뤄진 경미한 5950개소 제외)가 적발돼 1616개소는 원상회복을 마쳤고, 143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동과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해 격년제로 전수조사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공영주차장 복원사업과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문미숙기자

교통혼잡·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제주시가 교통혼잡 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 TV를 확대 설치하고, 오는 10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 7억원을 투입해 8월까지 3일까지 신고된 피해는 주택 반파 1건, 농경지 유실 0.1ha, 농작물 254.4ha 등이다.

올해 신규 설치장소는 읍면 지역은 애월읍 하귀택지지구·조천읍 조와로, 동 지역은 이도2동 이도광장교

차로·연삼로·제주시농협 광양지점 앞·아라동 점단과학기술단지·용담1동 미래컨벤션센터 인근·용담2동 해태동산 인근·일도1동 중앙로 보성빌딩 앞·이도1동 풍문시장 현대약국 앞·노형동 본죽사거리 인근·제주시 오일장 입구 등이다. 또 외도초·인화초·제주동초 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3개를 설치했다.

시는 올해 설치된 21개 CCTV에 전기·통신 분야 인입이 마무리되면 전관관 표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시 등 9월까지 시민 대상 홍보를 한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 효과
 -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 높은 저장성
 -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 PGA: 알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랄때: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한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승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 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 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밍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위해 토양소독: 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한그린 : 희토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 휴 믹 :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 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고택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